
 인천광역시		<b>보 도 자 료</b>		 인천의꿈 대한민국의미래	
		배포일자	2022년 12월 8일(목) 총 4매		
담당 부서	보건의료정책과	담 당 자	• 보건정책팀장 김순심 ☎440-2711 • 담당자 윤신원 ☎440-271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 7개 섬에 애인(愛仁)병원 지정...병원선도 새로 건조

- 12.8일 대청도에서 도서지역 무료 진료사업 실시, 앞으로 지속 추진 -
- 주치병원 지정 등 민관 협력 도서지역 의료지원 활성화, 응급 의료체계 확충 -
- 25년부터 새 병원선 운항, 공공보건의료인력 안전 확보도 지속 추진 -

인천시가 연육교가 없는 7개 섬지역에 주치(主治)병원을 지정하고, 병원선도 새로 건조하는 등 의료취약지인 도서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개선에 적극 나선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도서지역 무료 진료사업’ 등 도서지역 의료지원 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5년 처음 시작됐다가 2019년 이후 중단된 민·관협력 도서지역 무료 진료사업은 도서지역 거주 여건상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의료 문제를 민간 의료인력과 자원을 활용해 협업함으로써 공공의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지난 10월 31일 덕적면에서 인천세종병원과 함께 올해 첫 민·

관협력 무료 진료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12월 8일에는 인하대병원과 함께 대청면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사업을 실시했다.

이날 인하대병원 의료진은 사전 예약한 대청도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고령층에 필요한 통증치료, 영양수액 주사, 치과 진료 등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추가 진료가 필요한 주민일 경우 병원 진료와 연계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육지와 연결돼 있지 않은 강화군과 옹진군의 7개 면(面) 도서지역 주민 중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은 평균 31%에 이르며, 강화군 서도면의 경우 51%에 달하는 실정이다. 반면, 이들 지역에는 보건지소 등을 제외하면 병·의원은 백령도에 1곳밖에 없고, 약국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그동안 시는 도서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건지소, 병원선 등에 공중보건 의사 82명을 배치하고, 올해 33억 원을 지원해 보건지소(진료소) 신·증축 및 노후 의료장비 교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공중보건 의사 배치인력이 지속 감소하는 등 도서지역 의료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도서지역의 열악한 의료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민·관협력을 통해 도서지역에 대한 의료지원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재개된 ‘도서지역 무료 진료사업’을 앞으로도 지속 추진한다.

특히, 육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7개 면(面) 도서지역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한다. 이들 7곳에 대해 관내 종합병원들과 협력해 ‘1섬 1주치(主治)병원’을 지정해 병원별로 한 개의 섬을 맡아 주기적으로 무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 애인(愛仁)병원’ 사업을 추진한다.

노후된 병원선을 새 선박으로 대체 건조해 무의(無醫)도서에 대한 순회진료를 확대한다. 현재 의료기관이 없는 옹진군의 3개 면, 9개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병원선을 운영 중이나, 1999년 건조돼 노후된 것은 물론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한계가 있는 상태다. 1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2024년까지 200톤 규모의 병원선을 새로 건조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운항에 들어갈 예정이다. 새 병원선이 투입되면 순회진료 대상지역이 7개 면, 23개 도서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서해지역 비상 재난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공공의료인력 배치와 장비 확충도 적극 추진한다. 도서지역 보건지소·진료소의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공중보건의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에 적극 건의하는 한편, 백령병원의 의료인력과 장비 확충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또, 도서지역 응급 의료체계 확충에도 힘쓴다.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도서지역 5곳의 닥터헬기 인계점(착륙장)을 정비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를 대비한 원격진료 시스템 구축 및 정비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섬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자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생각한

다”며, “의료취약지인 도서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내 의료기관에서도 ‘1섬 1주치병원’ 지정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 종료(14시) 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 < 참고 > 인천시 연륙교 없는 도서지역 현황

○ 인구 현황(22년 10월 기준)

도서명	총계	옹진군							강화군
		계	덕적	북도	연평	백령	대청	자월	서도
인구수	14,665	14,018	1,933	2,147	2,120	5,038	1,445	1,335	647
65세이상 인구수	4,534	4,207	826	848	400	1,137	457	539	327
비율(%)	31%	30%	42.7%	39.5%	18.9%	22.6%	31.6%	40.4%	50.5%

\* 도서지역 7개 면(面)의 65세이상 노령 인구 비율 평균 31%, 인천시 평균(15%) 2배 ↑

○ 의료기관 현황(22년 10월 기준)

구 분	총계	옹진군							강화군
		계	덕적면	북도면	연평면	백령면	대청면	자월면	서도면
지역보건의료기관*	19	17	6	2	2	1	2	4	2
병 · 의원	1	1	0	0	0	1	0	0	0
약국	0	0	0	0	0	0	0	0	0

\* 지역보건의료기관 : 보건지소, 보건진료소